

신당-민주 통합 무산 되나

공동대표나 단독대표나...이건 못 좁혀 막판 타협 모색, 양보 없인 타결 힘들 듯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 협상 시한인 설 연휴를 앞두고 타결과 결렬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합당의 최종 결립돌인 공동대표제 채택 여부를 놓고 신당이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이의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대표 간 회담을 제의했으나 신당은 마후 접촉을 더 갖자는 입장이어서 막판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간) 협상 쟁점은 공동대표의 법적 문제 한 가지로 축소됐다"며 "신당 측에서는 신당 측 1인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

로) 등록해 법적으로 1인 대표제, 실질적으로 단독대표체제로 하자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이것은 곤란하다고 실망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비유하자면 결혼식 올려놓고 혼인신고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통합은 사실상의 개별 입당하라는 것으로 당원들이 반대해 종국적으로는 통합을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 "오늘 중 양당 대표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양측 수뇌 간 담판을 제안했다.

하지만, 신당 측은 박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양당 물밑협상을

계속하자고 역제안했다.

신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여러 번의 회담 무산 경험을 볼 때 합의되지 않은 채 회담을 하게 되면 통합을 바라는 국민이 또 한번 실망할 수 있다"며 "양당 대표 회담은 양당 간에 완벽하게 통합에 관해 합의를 해 놓고 발표하는 형식이 돼야 옳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어차피 공동대표를 하게 되면 법적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상의해 합의해서 집행하면 된다. 박 대표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날 통합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판 중 양당 대표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양측 수뇌 간 담판을 제안했다.

하지만, 신당 측은 박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양당 물밑협상을

이 대표회담을 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통합의 지름길이다. 통합시 공동대표 등록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당 핵심 당직자는 "손대표 체제는 수도권 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양당 통합의 결과가 수도권 유권자에게 선택의 의미로 다가가야 한다"며 "한쪽 당 대표로만 법적 등록하는 것은 전례도 없는 일이다. 박 대표의 제안은 통합 무산 책임을 신당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당직자도 "박 대표가 통합의 절체절명성을 강조하면서 2개월짜리 시한부 대표직을 요구하는 저의가 수상하다"며 "결국 공천 심사위원 비율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공동대표직을 맡아 전략공천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심상정 대표 사퇴 민노당 분당 수순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일심회 관련자 제명을 골자로 한 혁신안이 전날 임시 당대회에서 부결돼 비대위 총사퇴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노당이 창당 8년만에 실질적인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

혁신안 의결과 비대위 신임을 연계했던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총사퇴 입장을 밝히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보낸 최후통첩을 겸허하게 받아 민음직한 진보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라는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사회드린다"고 말하고 설 연휴 기간 향후 계획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슈퍼 화요일을 이틀 앞둔 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유세집회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속 논란 인수위 '속도 조절'

생활비 인하·영어 공교육 정책 등 후퇴

변화와 개혁의 가치를 들고 초고속 질주를 이어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정책카드나 개혁안을 '생산'하기 보다는 그간 제시된 정책구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재조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세부적인 정책설계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처리는 아예 새 정부의 몫으로 돌려놓고 있다.

서민생활비 인하정책은 이 같은 속도조절 기류를 확연히 느끼게 한다. 인수위는 출범하자마자 통신요금 20%와 유류세 10% 인하를 일성으로 외쳤지만 지금에 와서는 '새정부 이후 논의' 또는 '현실성 재검토'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서고 있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안을 놓고는 시장원리 침해 논란이 일면서 '업계 자율' 쪽으로 후퇴했다. 당초 이달 중 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었던 공기업 민영화 역시 새정부 출범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다.

인수위의 이 같은 속도조절은 무엇보다도 "너무 나갔다"는 과속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가 정권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한시기구의 차원을 넘어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여론이 심

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다. 특히 영어 공교육 등 일부 개혁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여론의 역풍을 일으키거나 정치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이 당선인의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부의 경고음도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 당선인에 대한 지지도가 당선 이후 최고치에서 10% 포인트 가량 빠진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 선거는 엄연히 다르다"며 "이제부터는 책임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게 내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전날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이 "컨베이어벨트"를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인수위는 1차 제품을 만들어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는 역할에 그치고, 최종적인 상품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속에서 인수위는 '일' 뿐만 아니라 '몸집'도 줄여나가고 있다. 설연휴를 전후해 '최소 필수인력'을 빼고는 모두 원대복귀시킨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일이나 남은 인수위 활동이 '조기 남파'하는 듯한 분위기다. /연합뉴스

김영진 前 농림 "새 도약 앞장서 이끌겠다"

4·9 총선 현장

○4선 의원으로 광주 서을 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4일 '더 큰 광주-그 중심 에너지 서구'라는 슬로건과 함께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잡기에 돌입.

이날 서창과 마북동을 '친환경 생명 농업 지구'로 조성하고, 이 지역에 외국어고를 유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한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도약을 앞장서서 이끌 중진급 리더가 절실하다"면서 지지를 호소.

임성훈씨 나주·화순 예비후보 등록

○최 근 선관위에 나주·화순 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성훈 씨(위탁 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

코스닥 상장업체인 ㈜바텍의 창업주이기도 한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 벤처협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지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서갑원 의원 15일 순천 선거사무소 개소

○서갑원 의원이 오는 15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순천지역 '수성'을 목표로 본격적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순천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민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등 표밭 갈이를 본격화.

고현석 前 곡성군수 출마 공식 선언

○고현석 전 곡성군수가 4일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곡성·담양·장성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

고 전 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년간의 군정 경험을 살려 농촌의 활로를 여는 정책을 제안하고 관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호남 위상을 세우고 이끌어갈 지도력을 구축하는데 밀거름이 되겠다"고 표명.

김화진씨 복지관 찾아 급식 봉사

○남구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화진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유권자와 함께하는 기회를 늘리면서 표심 공략을 본격화.

김 후보는 또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 이어 인근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노인들을 찾아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바마, 힐러리 오차범위 추격

美 대선 '슈퍼 화요일' 경선... 공화 매케인 독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민주, 공화당 경선의 결정적 관전 포인트 '슈퍼 화요일'이 이틀 앞으로 막두했다.

최대 24개 주 등에서 코카스(당원대회) 및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5일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이날 결과에 따라 양당의 대선후보가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캘리포니아(민주 441, 공화 173)를 비롯, 뉴욕(민주 285, 공화 101), 일리노이(민주 181, 공화 70), 뉴저지(민주 127, 공화 52), 매사추세츠(민주 121, 공화 43명) 등 대형 주(州)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양당의 대선후보를 결정짓는 '매직 넘버' 2천25명의 판세를 좌우할 1천681명이, 공화당은 '매직 넘버' 1천191명에 육박하는 1천233명이 이날 하루에 결정된다.

3일(현지시각) 현재 각 당의 선거판도는 민주당의 경우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추격,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화당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경쟁자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압도적 리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로이터와 조그비-C스팬 공동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가 45%의 지지율로 힐러리(41%)를 제쳤으며, 뉴저지에서 힐러리 43%, 오바마 42%, 미주리에서도 힐러리 44%, 오바마 43%로 예측 불허의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매케인이 롬니 무세 지역인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뉴욕, 뉴저지, 미주리주 등에서 모두 크게 앞섰다. 라스무센 조사에서도 오바마는 캘리포니아에서 45% 지지로 힐러리(44%)를 근소하게 앞섰으며, 조지아에서는 오바마(52%)가 힐러리(37%)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광주적인 볼 축구엔 여러분의 헌혈같은 사랑에
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K-리그에서 사인해 여러분이 열원에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상무프로축구단 선수 및 임직원 일동